

# 에틸렌, 아시아 공급과잉 가속화

## ExxonMobil, 싱가포르 크래커 가동 ... 역내 공급량 630만톤 추가도

아시아 에틸렌(Ethylene) 시장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ExxonMobil은 에틸렌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크래커의 가동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6월7일 발표했다.

스위거 ExxonMobil 부회장은 에틸렌 신규가동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한다. 석유화학산업은 많은 사이클을 겪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xonMobil은 2010년 하반기에서 2011년 사이에 에틸렌 크래커를 완공하고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무역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에틸렌 추가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타이, 싱가포르, 인디아는 에틸렌 공급량을 추가로 630만톤 늘릴 계획이어서 아시아 공급량은 4833만톤에 이르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08>